

## 영재관찰추천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른 영재판별의 차이

고 민 석

한국교원대학교

박 병 태

서울대치초등학교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영재 판별 및 추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영재 판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연구 결과, 교사들의 영재관련 경험에 따라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였거나 관찰추천을 담당하는 교사의 영재판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교사들은 영재판별척도도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를 가장 높은 판단 기준으로 여겼다.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학부모 추천 및 동료 추천에 대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에 비해 낮았으며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교사 집단이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영재교육전문성, 영재판별, 영재관찰추천

### I. 서 론

오늘날 영재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단순한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으로까지 증대되어 나타나고 있다(이인호와 한기순, 2009). 효과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최근 영재선발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적 능력 중심의 시험을 통한 영재 선발 체제로는 학생의 진정한 영재성을 판단할 수 없고(이신동, 이정규, 박춘서, 2009),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거나 사회적 소수 집단의 영재 판별에 실패할 수 있으며(Passow, 1989), 부모의 관심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의 잠재적 영재의 선발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승희, 2009). 이러한 비판으로 최근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선발에 대해

---

교신저자: 박병태(botemi65@hanmail.net)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은 대상 학생의 영재적 행동 특성을 예측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Siegle & Powel, 2004). 이에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 판별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적 제약으로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재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단계 관찰, 추천에 의하여 객관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또한 2011학년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지역교육청 영재학급 선발제도부터 관찰추천방법에 의한 영재선발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있어 관찰추천방법이 점차 확대될 실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서울시에서는 영재관찰추천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닌 영재성을 가진 아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0), 이를 위해 현장의 교사들은 잠재적 영재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관찰이 중요함을 인식하고(한기순과 이정용, 2011),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잠재적인 영재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영재관찰추천에서 잠재적인 영재 아동의 생활을 최초로 관찰하고 판별하는 것은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영재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합당한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진정한 영재가 판별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교사의 신념이 교육의 실제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Ashton & Webb, 1986), 실제로 교사가 영재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은 전체적인 영재 판별 과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재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부주의는 영재 판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ldhusen, Asher & Hoover, 1984). 교사가 영재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영재나 영재가 아닌 학생으로 판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Sternberg, 2004).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행에 앞서 다음 2가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어떤 학생이 영재로 판별되어야 하는가이고, 둘째는 영재판별을 위해 담임 교사에게 필요한 영재교육전문성이 무엇인가이다.

먼저 어떤 학생이 영재로 판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Renzulli(1978)는 교사의 평가, 표준화된 검사, 시험 등을 통해 쉽게 확인 될 수 있는 학교에서 쉽게 보여질 수 있는 영재보다 독창적인 사고, 과제 집중력이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영재를 판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Sternberg(2004)는 영재성을 분석적 영재성, 종합적 영재성, 실제적 영재성으로 구분하여 학습 결과를 측정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포함하는 검사 도구를 제시하였다. Gagné(1993)는 영재성과 특수재능으로 구분하여 영재성을 설명하였는데, 타고난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동기적 측면(흥미, 집중력)과 정의적 태도(자아존중, 자신감, 자율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영재성의 개념이 더욱 세분화 되어 Tannenbaum(2003)은 8가지 유형으로 영재성을 제시하였다. 영재 판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영재성이 어느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정의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

한 척도로 Renzulli 외 (2002)에 의해 제작된 SRBCSS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Davis & Rim, 2003), 진현정과 최호성(2010)은 이를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어판 영재아 행동특성 평정척도들(K-SRBCSS) 개발하였다. 영재행동특성을 학습적 행동특성, 창의성 행동특성, 동기적 행동특성, 리더십 행동특성, 수학적 행동특성, 과학적 행동특성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정하게 하였으며, 타당한 도구임을 검증하였다(진현정과 최호성, 2010).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영재 판별에 있어 학부모 추천, 동료 추천의 효과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Cramond & Martin, 1987; Gagne, 1983; McCoach & Siegle, 2007), 학부모 추천, 동료 추천이 실제 판별과정에서 교사의 판별과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판별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재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영재교육전문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서혜예와 박경희(2007)는 Shulman (1986)의 교과지식, 교과교육학지식, 일반 교육학지식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재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이해, 영재판별 및 선발 방법에 대한 이해,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능력, 전공교과 전문지식, 첨단지식에 대한 이해, 영재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영재교육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능력, 영재 학생과의 상담 능력, 교사의 연구 수행능력, 영재교육의 철학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영재교육 관련 행정적 문제해결능력, 학부모, 지역 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능력의 영재교사전문성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 전문성’ ‘능력기반 전문성’ ‘상황기반 전문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재 판별이 영재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비교하였을 때(Feldhusen, Asher & Hoover, 1984), 담임교사들이 영재를 판별함에 있어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영재교사 전문성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의 측정을 통해 교사들의 영재교육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재관찰추천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영재 판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영재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영재성을 지닌 잠재적인 영재 판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할 때에 영재의 특성보다는 학업 성적이나, 학생의 지능에 중점을 두어 선발하기도 한다(Schack & Starko, 1990). 실제로 90%의 영재아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교사에 의해 추천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창의성 있는 영재보다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추천한다(Betts & Neihart, 1988). 이와 같은 판별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영재판별 척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영재판별 척도를 영재 아동들에게 실제 적용하는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신념이 영재 판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담임교사는 영재 판별과정에서 교사에게 불임성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선호는 교사의 특정한 교육학적 신념에 따른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Schroth & Helfer, 2008). 또한 교사들은 창의성이 있는 영재 학생들의 태도가 교사에 반하는 경우 덜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인다(Prieto, Parra, Ferrandiz, & Sanchez, 2004; 류지영, 2010에서 재인용)는 점에서 자칫 관찰과 추천에 의해 진정한 영재를 찾기 보다는 교사들의 편의에 의해 관찰이 배제된 채 학업 우수자들이 영재로 판별 될 가능성이 높아 영재 교육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영재관찰추천 제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담임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을 알아보는 것과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이 영재 판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영재관찰추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영재판별도구의 개발이나 영재판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급에서 일차적으로 잠재적인 영재학생들을 접하여 관찰추천하게 되는 담임교사들의 영재교육전문성이나 영재 판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영재를 판별하는데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은 영재교육 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나.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 다.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초등학교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영재 판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위한 집단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11개 지역 교육청 내 초등학교 교사 200명을 무선 표집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18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영재관찰추천 담당여부,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배경변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자

배경변인	내용	인원수(명)	비율(%)
영재관찰추천담당여부	담당	47	25.6
	비 담당	137	74.4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 이수여부	이수	35	19
	미이수	149	81

## 2. 조사 도구

선행연구에서 일반교사를 위한 영재교육전문성의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에 대한 질문지는 초등학교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구성요소(서혜애와 박경희, 2007)를 바탕으로 담임 교사가 영재교육의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지를 개발하여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을 알아보았다. 질문지는 영재교육교사 전문성 구성요소인 지식 기반 전문성, 능력 기반 전문성, 상황 기반 전문성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3개 영역 13개 문항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나 영역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 기반 전문성의 하위 요인 1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3개 영역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의 하위 요인별 내적신뢰도는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지식 기반 전문성은 첨단 지식에 대한 이해, 전공 교과 전문지식, 영재교육관련 연구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능력 기반 전문성은 영재의 특성 이해, 영재판별 및 선발방법 이해, 영재교육 평가 방법 이해, 영재 교수학습 방법 이해,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해, 영재학생 상담능력, 영재프로그램 개발 이해가 포함된다. 상황기반전문성은 영재교육 관련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이해, 영재교육관련 행정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하위 문항들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 3인에 의해 2차에 걸쳐 내용을 수정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2>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측정 영역 및 하위 요인별 내적 신뢰도

영역	하위 요인	$\alpha$ 값
지식 기반 전문성	첨단 지식에 대한 이해	.758
	전공 교과(과학, 수학) 전문 지식	
	영재교육관련 연구 수행 능력	
능력 기반 전문성	영재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이해	.916
	영재판별 및 선발방법 이해	
	영재교육 평가 방법 이해	
	영재 교수학습 방법 이해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해	
	영재학생 상담능력	
상황 기반 전문성	영재교육 관련 학부모, 지역사회와 관계 이해	.781
	영재교육 관련 행정적 문제 해결 능력	

한편 교사의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추천 영재 선발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0)의 평정 척도와 K-SRBCSS(진현경과 최호성, 2010)에 근거하여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

여 총 4개 영역 8개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영재관찰추천 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았다(<표 3> 참조).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재관찰추천제도에서 담임교사가 학생 추천, 학부모 추천, 교사추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 추천과 학부모 추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추가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교사 추천의 각 영역에 대한 하위 문항들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측정하도록 설계하고 영역별 신뢰도를 검사하였으며, 각 영역의 하위 요인별 내적신뢰도는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완성된 설문지는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 3인에 의해 2차에 걸쳐 내용을 수정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3> 영재 판별 척도의 영역 및 하위 영역별 내적 신뢰도

영역	문 항 수	a 값
학습 능력	또래보다 우수한 지적 능력	.717
	우수한 학업 능력(과학, 수학)	
창의성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아이디어	.726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811
	의사소통능력과 발표력	
학습동기 및 태도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태도	.807
	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욕(학습 동기)	

###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 인식과 영재판별척도의 중요성 인식 정도의 영재교육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영재관찰추천 담당 여부,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 이수 여부를 변인으로 하는 내용은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영재관찰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와 추천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의 영재전문성 수준에 따른 판별 척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5이상(3.5이상)을 영재전문성인식이 높은 집단, -.5이하(3.5이하)를 영재전문성인식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지식 기반 전문성, 능력 기반 전문성, 상황 기반

전문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후, 영재교육관련 경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다.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을 전문성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보통 수준의 전문성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초등학교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에 대한 인식 (N=184)

영역	세부 영역	평균 (M)	표준편차 (SD)
지식 기반 전문성	첨단 지식에 대한 이해	3.42	.778
	전공 교과(과학, 수학) 전문 지식	3.41	.801
	영재교육관련 연구 수행 능력	3.08	.895
	전체	3.32	.678
능력 기반 전문성	영재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이해	3.47	.802
	영재판별 및 선발방법 이해	3.46	.934
	영재교육 평가 방법 이해	3.38	.927
	영재 교수학습 방법 이해	3.20	.905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해	2.92	1.002
	영재학생 상담능력	3.14	.955
	영재교육프로그램 이해	2.80	.999
	전체	3.20	.761
상황 기반 전문성	영재교육 관련 학부모, 지역사회와 관계 이해	2.97	1.093
	영재교육 관련 행정적 문제 해결 능력	3.07	.988
	전체	3.02	.944

세부 영역에 있어서는 교사들은 첨단 지식,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영재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이해, 영재판별 및 선발방법 이해에 대해서는 3.4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이해, 영재교육프로그램 이해, 영재교육 관련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 이해에 대해서는 3.0 이하로 보통보다 낮은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영재판별 및 선발은 영재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야 함(김미숙, 2008)과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이해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된 영재를 판별하여 추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자신의 교직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직업적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홍서민, 2007) 비교해 볼 때 일반 교사들의 영재 교육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 아니며, 대학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의 지적 기술과 관련된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다(임희연, 2008)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영재 교육을 통해 영재 교육전문성 인식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재 관찰추천 담당 여부에 따른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의 전문성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러한 차이는 지식 기반 전문성, 능력 기반 전문성, 상황 기반 전문성의 전체 영역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상황 기반 전문성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 관찰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담당하였거나, 여러 차례 실시된 관찰추천담당자 연수를 통해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관찰추천 담당 여부에 따른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차이  
(담당 N=37, 비담당 N=147)

내 용	담당여부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기반전문성	담당	3.74	.809	4.171	.000**
	비담당	3.18	.577		
능력기반전문성	담당	3.79	.676	6.525	.000**
	비담당	3.00	.693		
상황기반전문성	담당	3.82	.892	7.144	.000**
	비담당	2.77	.822		
전체	담당	3.78	.631	7.389	.000**
	비담당	2.99	.612		

\* $p < .05$ , \*\* $p < .01$

60시간 이상 영재 직무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영재관찰추천 담당여부와 마찬가지로 지식 기반 전문성, 능력 기반 전문성, 상황 기반 전문성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영재직무연수 이수 여부에 따른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차이  
(이수 N=35, 미이수 N=149)

내 용	이수 여부	평균	표준편차	t	p
지식기반전문성	이수	3.93	.770	5.471	.000**
	미이수	3.17	.568		
능력기반전문성	이수	3.86	.655	6.361	.000**
	미이수	3.04	.698		
상황기반전문성	이수	3.68	.891	4.883	.000**
	미이수	2.86	.889		
전체	남	3.82	.612	6.79*	.000**
	여	3.03	.630		

\* $p < .05$ , \*\* $p < .01$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3.82로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3.03인 것에 비해 큰 차이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영재관찰추천에서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영재관찰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등 영재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낮은 영재교육전문성인식 수준이 잠재적인 영재 판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90%의 영재아가 훈련받지 않은 교사에게 의해 추천되고 있고, 창의적인 영재보다 학습태도와 학습성적이 좋고 교사에게 순응적인 학생들이 추천될 수 있으며(Betts & Neihart, 1988),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관련 지식이 없는 교사의 경우 영재의 흥미와 능력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무시한다(Hanninen, 1988). 이러한 경우 학습성적이 낮은 영재,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영재, 학습흥미가 높은 일반학생, 교사에게 순응적이고 학습성적이 높은 일반학생이 영재로 판별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반교사와 영재관련 경험을 쌓은 교사 간에 영재교육전문성에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낮은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은 교사의 영재 판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영재관찰추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재교육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직한 영재판별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영재교육전문성의 종류와 교육의 정도는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 영재관찰추천 과정에서 영재판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가. 영재관찰과정과 추천과정에서 교사들의 영재판별에 대한 인식 차이

영재판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영재관찰추천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관찰과정에서의 인식 정도와 추천과정에서의 인식 정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7> 영재관찰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N=184)

영역		M	SD
동료 추천		3.14	.983
학부모 추천		2.74	.914
교사추천	학습능력	4.00	.655
	창의성	4.52	.657
	리더십	3.88	.848
	학습동기 및 태도	4.60	.532

먼저 영재관찰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학습태도, 창의성, 학습능력, 리더십 영역 순으로 중요성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특히 학습동기 및 태도, 창의성에 대한 평균은 각각 4.6, 4.52로 매우 높은 인식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 관찰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습동기 및 태도, 창의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영재관찰추천제도가 표준화된 선발검사보다 창의성, 동기적 특성, 리더십, 일반 지적능력을 포괄하여 판별할 수 있다(Neber, 2004)는 측면에서 영재관찰추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영재관찰추천이 지적능력이나 창의성 평가를 위주로 한 시험 방식의 기존 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리더십 영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영재교육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육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사들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중요성 인식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중 동료 추천이나 학부모 추천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부모 추천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2.74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 의한 추천이 영재성은 있지만 학업성적이 낮거나 학교 내의 여러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겹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에 의해 영재를 판별하지 못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인호와 한기순, 2009)는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학부모 추천과 동료 추천 영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영재관찰추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영재관찰추천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동료 추천(강애남과 이규민, 2006)과 영재 학생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학부모 추천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영재 추천 과정에서 교사의 영재 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창의성과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가 4.48, 4.4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이에 반해 동료 추천, 학부모 추천의 영향은 2.89, 2.86으로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영재추천과정에서도 학습능력보다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영재추천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N=184)

영역		M	SD
교 사 추 천	동료 추천	2.89	.972
	학부모 추천	2.86	.968
	학습능력	4.15	.609
	창의성	4.48	.577
	리더십	3.89	.711
	학습동기 및 태도	4.47	.571

영재관찰과정과 추천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은 영재관찰과정에서 교사의 중요성 인식 정

도와 영재추천과정에서 교사의 중요성 인식 정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영재관찰추천 과정에서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와 같은 정의적 척도에 대해 영재관찰과 추천에서 교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정도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료 추천 영역에 대해서는 영재관찰과정에서 중요성 인식 정도가 3.14로 나타났으나, 영재 추천과정에서는 중요성 인식 정도가 2.89로 유의미한 차이로 줄어들었으며 ( $p < .01$ ), 학습능력 영역은 영재관찰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가 4.00으로 나타났으나 추천과정에서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는 4.15로 유의미한 차이로 늘어나( $p < .05$ ) 영재관찰과정에서 보다 실제 추천과정에서 중요성 인식 정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나. 교사의 영재교육관련경험에 따른 영재판별에 대한 인식 차이

영재관찰과정에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가 영재교육관련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찰추천 담당여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차이(<표 9> 참조)와 60시간 이상 영재연수이수 여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차이(<표 10> 참조)를 분석하였다.

<표 9> 관찰추천 담당여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차이 (N=184)

영역	담당여부	M	SD	t	p
동료학생 추천	여	3.41	1.138	1.850	.069
	부	3.06	.925		
학부모 추천	여	2.51	.984	-1.788	.076
	부	2.79	.884		
학습능력	여	4.16	.564	1.127	.261
	부	4.03	.686		
교사 추천	여	4.69	.451	2.431	.017*
	부	4.47	.710		
리더십	여	4.09	.796	2.015	.045*
	부	3.79	.858		
학습동기 및 태도	여	4.74	.467	2.165	.032*
	부	4.54	.547		

\* $p < .05$ , \*\* $p < .01$

교사의 관찰추천 담당 여부에 따라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에서 관찰추천을 담당한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찰추천을 담당한 교사가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참조). 이는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판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연구(류지영, 2010)에서 영재담당교사들이 영재성의 중요한 요소로 창의성, 과제집착력, 인지적인 특성 순으로 꼽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관찰추천에 의한 영재판별 방법이 창

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영재관찰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의 경우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전문성 인식 수준에서 영재관찰추천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영재판별에서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반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며, 영재관찰추천담당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재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표 10> 영재직무연수 이수여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차이 (N=184)

척도	영재연수 이수여부	M	SD	t	p
동료학생 추천	이수	3.34	1.109	1.313	.191
	미이수	3.10	.949		
학부모 추천	이수	2.57	1.065	-1.103	.276
	미이수	2.78	.874		
학습능력	이수	4.25	.533	1.969	.051
	미이수	4.01	.673		
교사 추천	이수	4.72	.370	2.887	.005**
	미이수	4.48	.700		
리더십	이수	4.07	.768	1.484	.140
	미이수	3.83	.862		
학습동기 및 태도	이수	4.78	.388	2.864	.006**
	미이수	4.55	.553		

\* $p < .05$ , \*\* $p < .01$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 이수 여부에 따라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경우 교사 추천 에서 창의성과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참조).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창의성과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의 영재판별중요성 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여 영재교육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가 창의성이나 학습 동기 및 태도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 판별에 있어 학습과 흥미, 끈기, 과제에 대한 집착력과 같은 정 의적 영역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행동특성척도의 활용이 강조 되어야 한다(Renzulli & Hartman, 1971)는 것과 더불어 교사의 영재관련 교육 정도가 창의성과 같은 정 의적 영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영재 판별을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영재 판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의 효과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학급에서 1차로 잠재적인 영재 학생들을 만나고 이를 추천하게 되는 담임교사에게도 영재 교육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영재직

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의 영재 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은 영재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었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와 같은 인성적인 부분을 영재 선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교사의 영재교육은 주로 담당교사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담당교사가 아닌 경우 연수를 받기도 어려우며, 교육 내용도 영재 담당 교사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재 판별을 위한 일반 교사들의 기본적 소양 함양의 차원에서 영재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며, 뒤에서 교사의 영재전문성인식수준과의 관계를 통해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료 추천 및 학부모 추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에서는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 이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등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식 정도를 나타냈다. 이는 영재교육의 경험과 관계없이 교사들이 동료 추천이나 학부모 추천의 중요성에 대해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자칫 교사의 독선적인 판단에 치우쳐 잠재적인 영재의 선발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학부모 추천의 경우에는 관찰추천담당자 이거나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일반 교사에 비해 중요성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더 높은 담당 교사가 학부모 추천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생각된다. 이는 곧 영재관찰추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추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료추천, 학부모추천이 실질적으로 추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다.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교사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의 상관관계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교사가 학급에서 영재학생들을 관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추천을 할 때 중요한 요소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재관찰과정과 추천과정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찰과정과 추천과정에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의 상관관계는 학부모 추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50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표 11> 참조).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교사들이 영재학생들을 관찰하는 과정과 추천하는 과정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교사들이 학급에서 잠재적인 영재를 정확하게 관찰하여 판별한다면, 실제 잠재적인 영재가 추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교사 추천이 비공식적인 자료이나 평가형식이나 검사 항목이 객관적으로 매겨진다면 상당한 정도로 공식적일 수도 있다(서혜애 외,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각 영역별 상관관계는 리더십(.70), 창의성(.64), 학습동기 및 태도(.53), 동료추천(.58), 학습능력(.52), 학부모 추천(.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부모 추천은 다른 영역의 상관계수와 비교해 볼 때 0.36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

인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에 의해 학부모 추천 자료에 대한 교사의 신뢰가 낮음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은 편이며,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이 자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강압적이거나 적극적인 뒷바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김대현, 2007)는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영재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교사들이 자녀에 대한 학부모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관찰과정과 추천과정에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의 상관관계

추천 과정 \ 관찰 과정	학생추천	학부모 추천	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학생추천	.582 (.000**)					
학부모 추천		.399 (.000**)				
학습능력			.523 (.000**)			
창의성				.645 (.000**)		
리더십					.708 (.000**)	
학습동기 및 태도						.538 (.000**)

\* $p < .05$ , \*\* $p < .01$

### 3.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른 교사들의 영재판별에 대한 인식 차이

영재교육전문성 수준에 따라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성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 차이에서 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동료학생 추천, 창의성, 리더십, 동기 및 태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2> 참조). 특히 창의성 영역은 전문성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이 4.24, 높은 집단이 4.75로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Renzulli (1978)와 Gagnée (1993) 외의 연구에서 영재 판별 기준으로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리더십 등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Cramond와 Martin (1987), Gagne (1983), McCoac과 Siegle (2007) 등이 영재 판별 과정에서 동료학생 추천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이러한 척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다는 것은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영재판별행동

을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Ashton과 Webb, 1986)은 교사의 신념이 교육의 실제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영재교육 관련 경험 전 영재교사들이 영재성의 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영재교육 관련 경험에 의해 정적 측면(과제집착력, 내적동기, 리더십)을 중요시 하게 된다(박선자 외, 2009)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급에서 영재를 1차적으로 판별하게 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관련 경험이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2> 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른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 차이  
(낮은 집단 N=33, 높은 집단 N=60)

척도	전문성 인식 수준	M	SD	t	p
동료학생 추천	낮은 집단	3.03	.983	-2.180	.032*
	높은 집단	3.50	1.000		
학부모 추천	낮은 집단	2.78	.927	1.198	.234
	높은 집단	2.55	.909		
학습능력	낮은 집단	3.96	.738	-1.502	.136
	높은 집단	4.16	.518		
교사 추천	창의성	4.24	.839	-3.046	.004**
	높은 집단	4.71	.415		
리더십	낮은 집단	3.57	1.046	-2.399	.020*
	높은 집단	4.06	.721		
학습동기 및 태도	낮은 집단	4.50	.484	-2.525	.013*
	높은 집단	4.74	.416		

\*p<.05, \*\*p<.01

한편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성 영역에 따라 전문성 인식 수준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눈 후 동료학생 추천, 학부모 추천, 교사 추천(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른 영역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학습 능력 영역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식 기반 전문성 인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표 13> 참조). 특히 학습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다른 지식 기반 전문성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현상으로 교사의 지식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영재 판별에서 오히려 학습능력 척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지식 기반 전문성의 하위 요소가 첨단 지식에 대한 이해, 전공 교과(과학, 수학) 전문 지식, 영재교육관련 연구 수행 능력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영재교육 전문적 능력의 전공 영역과 유사한 개념(Hultgren, 1982; 서혜애와 박경희, 2007에서 재인용)으로, 영재 판별을 위한 교사 교육이 전공 교과 지식과 같은 지식 기반 전문성을 강조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13> 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른 학습능력 영재판별척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차이

전문성 영역	전문성 인식 수준	M	SD	t	p
지식 기반 전문성 인식	낮은 집단	3.61	.625	-3.724	.000**
	높은 집단	4.23	.598		
능력 기반 전문성 인식	낮은 집단	4.00	.707	-1.133	.260
	높은 집단	4.14	.537		
상황 기반 전문성 인식	낮은 집단	3.99	.704	-1.320	.190
	높은 집단	4.15	.531		

\* $p < .05$ , \*\* $p < .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영재 판별에 대한 인식과 추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교사의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

첫째, 교사들의 영재관련 경험에 따라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60시간 이상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거나 학교에서 관찰추천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인식 수준이 일반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영재 관련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재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 교사의 경우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이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관찰추천에서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관찰추천을 담당하지 않거나 영재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등 영재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교사의 낮은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이 잠재적인 영재 판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에 대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 관찰추천제도가 기존의 지적능력 위주의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등을 강조한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은 관찰과 추천 과정에서 중요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영역에 대한 교사의 영재 관찰과 영재 추천 과정에서 중요성 인식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능력 영역은 교사의 영재관찰 과정에서 중요성 인식보다 영재추천 과정에서 중요성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추천 과정에서 학습능력 영재판별척도에 대해 더 높은 중요성 인식을 보였다.

셋째,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학부모 추천 및 동료 추천에 대한 교사들의 영재판별척도 중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교사추천(학습능력, 창의성, 리더십, 학습동기 및 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영재관찰과정과 영재추천과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간의 상관관



계를 비교한 결과, 학부모 추천영역의 상관계수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중요성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동료 추천 영역은 영재관찰과정에서의 중요성 인식 정도보다 영재추천과정에서 중요성 인식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학부모 추천 및 동료 추천 영재판별적도에 대해 낮은 중요성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추천과정에서 학부모 추천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 추천 및 동료 추천이 영재관찰추천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편견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학부모 및 동료 추천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재관찰추천과정에서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이 높은 교사 집단이 창의성, 학습동기 및 태도 영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문성 인식 수준이 영재관찰추천 담당이나 영재교육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수준이 낮은 일반 교사의 전문성 인식을 높여야 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전문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지식 기반 전문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기반 전문성, 상황 기반 전문성 영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학급에서 교사가 잠재적인 영재학생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이 일어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정확한 영재의 판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제언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이 일부 영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재관찰추천 영재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는 전체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재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영재교육연수가 영재교육 강사 양성을 위하거나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영재관찰추천 담당자 교육을 위한 연수에서 확대되어 잠재적인 영재 선발의 1단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반교사들의 영재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및 학생 추천 결과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영재관찰추천 매뉴얼에서는 10점 척도와 근거 일화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학부모에 의한 자녀 행동의 점수화는 결과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 이에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추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재교육전문성 인식 질문지는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영재판별에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강애남, 이규민 (2006). 학생들의 동료평가를 활용한 수행평가 결과의 일반화가능도 분석. **교육평가연구**, 19(3), 107-121.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내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시험 폐지 구체화.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8월 24일 보도자료.
- 김대현 (2007). 공립영재교육기관에 선발된 초등과학영재 학부모의 자녀 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 - ○○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재와 영재교육**, 6(2), 5-36.
- 박선자, 최경희, 이현주 (2009). 교육청 영재 교육원 과학 담당 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9(2), 119-137.
- 김미숙, 이행은, 이홍란, 배중수, 박만구, Cramond, B., & Zysberg, L. (200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8-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지영 (2010). 관찰·추천을 통한 영재판별에 대한 영재담당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159-178.
- 류지영, 정현철 (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259-289.
- 박숙희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영재와영재교육**, 8(3), 5-21.
- 서울시교육청 (2010). **관찰·추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매뉴얼**.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혜애, 조석희, 정현철, 강호감, 박인호, 박일영, 소광섭, 손정우, 이선경, 최호성 (2004).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선발체제 분석 연구. 수탁연구**. (CR 2004-4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혜애, 박경희 (2007). 영재교육 교사 전문성의 구성요소 탐색.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이동혁 (2010). 한국어판 Gifted Rating Scale의 구인타당도. **영재교육연구**, 20(2), 595-619.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인호, 한기순 (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임희연 (2008). **초등교사의 발달단계의 교직전문성 인식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진현정, 최호성 (2010). 한국어판 영재아 행동특성 평정척도(K-SRBCSS)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영재학회**, 20(2), 621-647.
- 홍서민 (2007).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에 따른 자율연수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기순, 이정용 (2011). 영재교사들이 지각하는 관찰·추천 영재판별 시스템의 방향, 중요도, 실행수준 분석. **영재교육연구**, 21(1), 107-122.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etts, G. T., & Neihart, M. (1988). Profiles of the gifted and talented. *Gifted Child Quarterly*, 32, 248-253.
- Cramond, B., & Martin, C. E. (1987).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academically brilliant. *Gifted Child Quarterly*, 31, 15-19.
- Davis, G. A., & Rimm, S. B. (Eds.) (2003).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5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Feldhusen, J. F., Asher, J. W., & Hoover, S. M. (1984). Problems i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ness, talent, or ability. *Gifted Child Quarterly*, 28(4), 149-151.
- Gagnée, F. (1993). Constructs and models pertaining to exceptional human abilities. In K. Heller, H. Passow, & F. Monks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69-87). Oxford: Pergamon Press.
- Hanninen, G. E. (1988). A study of teacher training in gifted education. *Roeper Review*, 10(3), 139-143.
- Hultgren, H. (1982). *Competencies for teachers of the gift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McCoach, D. B., & Siegle, D. (2007). What predicts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51, 246-255.
- Neber, J. (2004). Teacher identification of students for gifted children in junior high school: A comparison of methods. *Exceptional Children*, 25, 300-304.
- Passow, A. H. (1989). Need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ng high ability children. *Roeper Review*, 11, 223-229.
- Prieto, L., Parra, J., Ferrandiz, C., & Sanchez, C. (2004). *The role of the teacher within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British Education Index, Rrotherton Library, University of Leeds, UK: IEEDS.
- Renzulli, J. S., Hartman, R. K., & Callahan, C. M. (1971). Teacher identification of superior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38, 211-214.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 180-184.
- Renzulli, J. S., Smith, L. H., White, A. J., Callahan, C. M., Hartman, R. K., & Westberg, K. L. (Eds.) (2002). *Scales for rat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 students*.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Schack, G. D., & Starko, A. (1990).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An analysis of criteria preferred by preservice teacher classroom teacher and teachers of the gifted.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346-363.
- Schroth, S. T., & Helfer, J. A. (2008). Identifying gifted students: Educator beliefs regarding various policies, processes, and procedure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32(2), 155-179.

Scott, J. P., & Jillian, C. G. (2010). The teacher observation form: Revisions and updates. *Gifted Child Quarterly*, 54(3), 179-188.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Siegle, D., & Powel, T. (2004). Exploring teacher biases when nominating students for gifted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48(1), 21-29.

Sternberg, R. J. (Ed.) (2004). *Definitions and conceptions of giftedness*. Thousand Oaks, CA: CorwinPress.

Tannenbaum, A. J. (2000). A history of giftedness in school and society.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2nd Ed.). (pp. 23-53). London: Elsevier.

= Abstract =

## Difference on Identification of Gifted Students by Level of Perception of Teacher's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Min-Seok K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young-Tai Park

*Seoul Daechi Elementary School*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recognitions of a teacher's discernment & recommendations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targeting 184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 district and compared and contrasted their awareness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re existed a difference in the discernment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awareness level of professionalism i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achers' recognitions level of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relevant to a gifted elementary student. The teachers, in the process of observations & nominations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pointed out creativity, learning motive and attitude as the highest judging standard and also regard such elements as discerning criteria of gifted students. In the process of observations & nominations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it was found that teachers' recognitions of importance of discerning criteria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relation to parents or fellow teachers' recommendations appeared relatively lower than their recognitions of importance in relation to learning ability, creativity, learning motive and attitud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a group of teachers, who have a high recognitions level of the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in the process of observations & nominations of gifted students, perceive the realm of creativity, learning motive, and attitude as more important.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elevating teachers' awareness level of professionalism i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order to discern high-quality gifted students in the process observations & nominations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putting emphasis on the realm of creativity, learning motive, and attitude.

**Key Words:** Teacher's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The discernment of gifted elementary students, Observation and nominations of elementary gifted students

1차 원고접수: 2011년 4월 28일

수정 원고접수: 2011년 5월 30일

최종 게재결정: 2011년 6월 16일